

##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한국에 주는 함의

류제홍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중국**이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재등장하는 동안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거치며 소위 “세계의 공장”으로 활약하면서 전 세계에 중국산 물품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서 도 예외 없이 통상에 관련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단기간의 기간 동안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또한 다른 몇 가지 경제지표(해외직접투자, 대외원조, 정부보증 자금공여 등)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정치/외교적 목표를 배제하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이 관찰되는 것이 사실이다.

통상부문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절대적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확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가.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은 그동안 분명한 외교전략과 경제협력의 부재라는 특징을 갖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가진 잠재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중장기적 전략의 부재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상대적 열위에 놓여있게 됨을 뜻한다. 이보다 더 위중한 문제는 외교전략의 부재인데, 지정학적 중요도와 지리적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인구 13억의 거대 지역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원조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봐 왔을 뿐, 경제/외교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대아프리카 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 II.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 심화
- III.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외교적 관계 발전
- IV.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
- V. 결론

### 2000년대 들어서

*“Chinafrica”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이 단어가 함축하는 현상이 지배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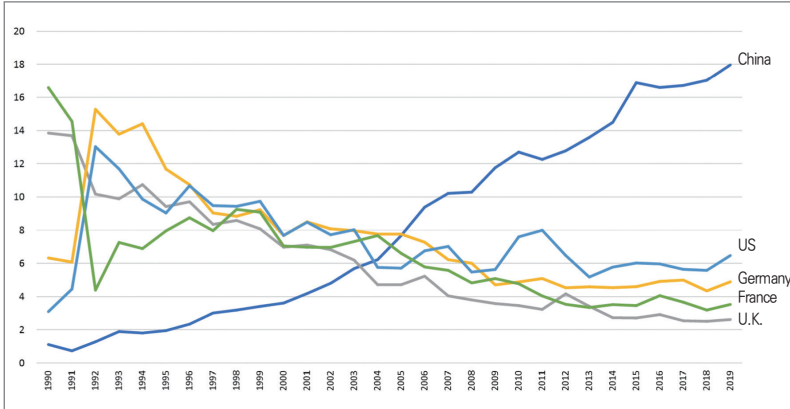
*이렇듯 국제정세가 급변해 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외교 전략에 대해서 재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I. 서론

- ◆ 2000년대 들어서 “Chinafrica”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이 단어가 함축하는 현상이 지배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2000년대 초반부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온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는 중국의 의도와 아프리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품어왔음. 과연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역내진출 확대가 아프리카 지역의 고질적인 저개발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의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해왔음.
- ◆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과거 식민지 모국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게 되면서 아프리카 지역내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이와 더불어 정치, 외교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경제 협력 증진 초기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관대한 자금 공여 조건을 받기며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새로운 원조 및 개발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을 기대해왔음. 하지만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비대칭적인 의존이 심화되고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며 중국 공여 자금에 대한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남에 따라 역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며, 최근 중국 주도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협의체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향후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어느 정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 이렇듯 국제정세가 급변해 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외교 전략에 대해서 재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동안 지정학적 위치 및 협력의 경험 부재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거의 부재했고, 정치적으로도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온 것이 사실임.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며 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변화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관계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II.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 심화

〈그림 1〉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입 상대국 비율 (%), 1990-2019



(출처: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sup>1)</sup>)

- ◆ 〈그림 1〉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입 상대국이 누구이며, 이들 상대국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데이터 출처는 세계은행 (World Bank)과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공동 노력으로 탄생한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ITS) 데이터 베이스임. 이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해서 국가간 양자 무역의 흐름을 추적해 볼 때,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모국과의 경제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 하지만 중국이 1990년대부터 연간 10%를 상회하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점차 급속도로 심화되어 왔음.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수입액의 비율이 서유럽의 식민 모국들로부터 수입액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2020년경에는 중국상품의 수입액이 아프리카 전체 수입액의 20%에 육박하여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의 제1의 수입 상대국이 되었음.
- ◆ 아프리카의 수출의 경우 양상은 수입과는 조금 다르지만,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은 마찬가지로 확대되어 오고 있음. 〈그림 2〉에서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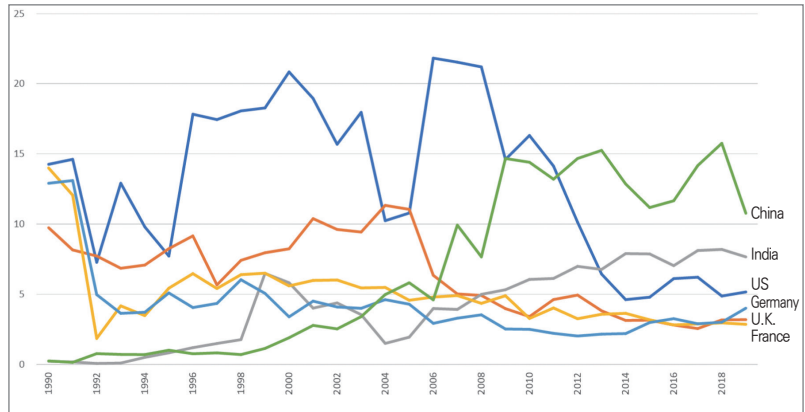
중국이 1990년대부터 연간 10%를 상회하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점차 급속도로 심화되어 왔음.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수입액의 비율이 서유럽의 식민 모국들로부터 수입액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2020년경에는 중국상품의 수입액이 아프리카 전체 수입액의 20%에 육박하여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의 제1의 수입 상대국이 되었음.

아프리카의 수출의 경우 양상은 수입과는 조금 다르지만,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은 마찬가지로 확대되어 오고 있음.

1) <https://wits.worldbank.org>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ITS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해서 추산해 본 결과, 1990년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약 20여 년간 아프리카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종착지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미국의 뒤를 이어 식민지 모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식민지 모국들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형성해왔음.

〈그림 2〉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 상대국 비율 (%), 1990-2019



(출처: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2010년대 초부터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상품의 최대 소비국이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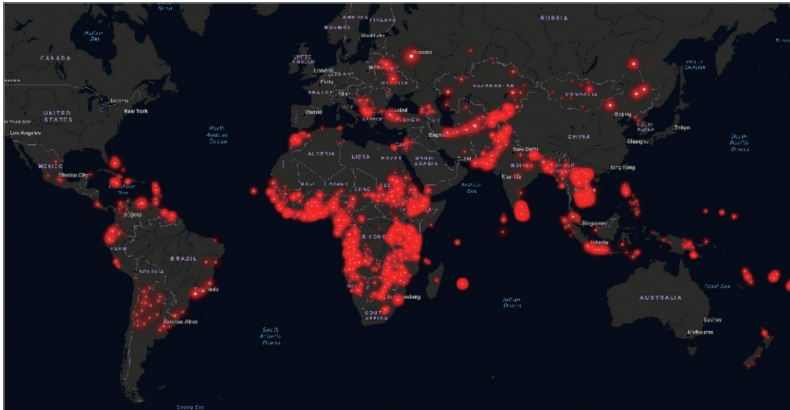
- ◆ 하지만 중국이 고도성장기를 거치고 내수시장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점차 아프리카 생산품들이 중국으로 향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대 초부터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상품의 최대 소비국이 되었음.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수입과 비교하여 수출은 어느 정도 다변화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소비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심화될 것으로 보임.
- ◆ 2019년 10월 중국은 모리셔스 (Mauritius) 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은 2021년 1월 1일 정식 발표하였음.<sup>2)</sup> 이 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은 향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 중국의 정부보증 (government-financed) 자금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 봄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집중도를 다른 방향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음. William & Mary 대학교의 광범위한 AidDat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중국의 정부보증 자금들의 흐

2) <https://www.mcci.org/en/global-marketplace/trade-agreements/mauritius-china-fta/>

름을 살펴보면, 2000-2014년의 기간 동안 3,485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73.6 billion USD의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된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지도상에 시각적으로 나타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중국의 상당한 자금이 Global South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이를 지도상에 시각적으로 나타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중국의 상당한 자금이 Global South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그림 3〉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2000-2012<sup>3)</sup>



(출처: AidData<sup>4)</sup>)

- ◆ Bluhm *et al.* (2018)에 따르면, 중국 자금의 상당 부분은 개발 프로젝트나 인프라 관련한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 시행의 결과로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순기능이 있음. 하지만 다른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가 지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인 목표에 집중이 되어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혹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함 (Adisu *et al.* 2010).
- ◆ World Bank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40여개의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 중 32개국에 대해서 가장 큰 채권국이 되었음.
- ◆ 마지막으로 *Financial Times*에서 수집한 fDi Markets라는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수의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그린필드투자 (Greenfield investment)는 앞선 다른 지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프랑스,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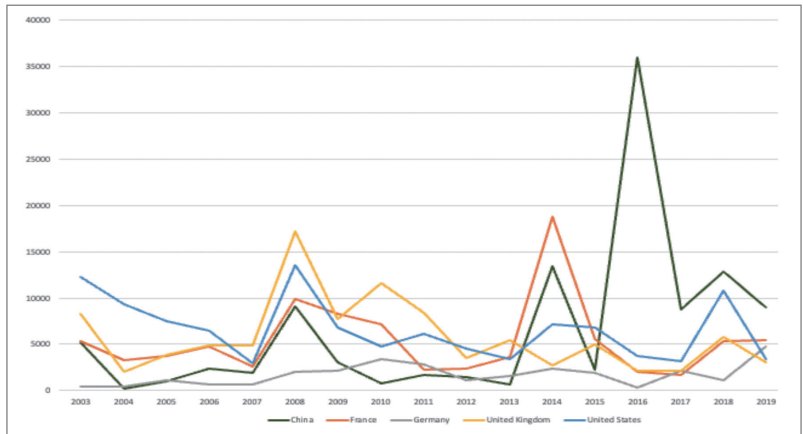
3) <https://www.aiddata.org/china-project-locations>

4) <https://www.aiddata.org/data/geocoded-chinese-global-official-finance-dataset>

2010년대 초반 이후로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액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5년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최대의 투자자가 되었음.

일, 또는 영국과 같은 식민지 모국들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주도해 왔으나, 2010년대 초반 이후로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액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5년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최대의 투자자가 되었음. 현재 10,000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국의 투자를 가장 많이 받는 상위 5개 아프리카 국가는 2018년 기준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잠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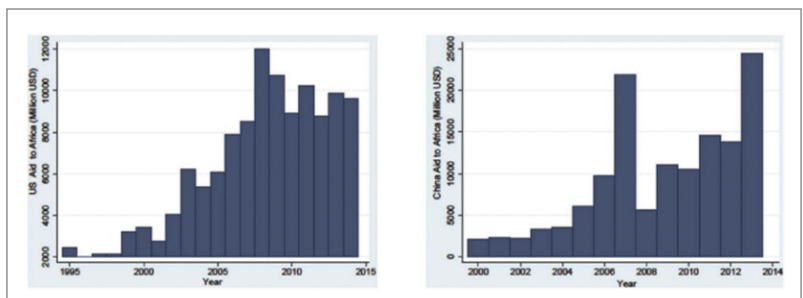
〈그림 4〉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



(출처: fDi Markets)

- ◆ 수입, 수출로 대변되는 상품교역과 달리 해외직접투자는 대상 국가에 직접 생산설비를 마련하고 현지 인부를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며, 지방 및 중앙정부와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치, 경제적인 행위임. 따라서 해외직접투지로 인해서 해외투자자들은 투자 대상국의 경제 및 정치적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확대의 정치적 의미 및 파급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그림 5〉 The Amount of Bilateral Aid (US vs. China)



(출처: Liu and Tang (2018))

- ◆ <그림 5>는 미국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로, 최대의 원조국인 미국의 원조 액수는 2000-2013년의 기간 동안 총 1300억 달러에 다다름. 이에 비해서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외원조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으며, 최근의 수치를 보면 전통적인 원조 국가들에 비견할 만한 수준이 되고 있음.

*이에 비해서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외원조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으며, 최근의 수치를 보면 전통적인 원조 국가들에 비견할 만한 수준이 되고 있음.*

### III.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외교적 관계 발전

- ◆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도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왔음. 양자간 관계의 진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몇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44개의 대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보다도 많은 수치임.<sup>5)</sup> 그리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주석, 총리 및 외교부장)들은 43개 아프리카 국가들을 79번에 걸쳐 방문하였음.
- ◆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 공산당은 Sino-Africa Political Party Leaders Program의 일환으로 200여명 이상의 젊은 아프리카 정치 지도자들을 후원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확대되어 2018년까지는 1,000명 이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후원하려고 계획하였음.<sup>6)</sup>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젊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 및 정치 거버넌스 모델을 소개하고, 중국 문화 및 언어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 ◆ 우리에게 “공자학원”으로 잘 알려진 the Office of Chinese Language Council International은 아프리카에 61개의 교습소를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학생들의 중국 유학을 지원하여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아프리카 학생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음. 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 학생 수를 이미 초월한 상태임.
- ◆ 이와 같이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모델 및 문화, 언어 전파를 통해서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나가고자 국가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진행 중임.

*이와 같이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모델 및 문화, 언어 전파를 통해서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나가고자 국가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진행 중임.*

5) Source: [https://www.fmprc.gov.cn/mfa\\_eng/wjb\\_663304/zwjg\\_665342/2490\\_665344/2493\\_665350/index.html](https://www.fmprc.gov.cn/mfa_eng/wjb_663304/zwjg_665342/2490_665344/2493_665350/index.html)

6) <https://www.brookings.edu/blog/africa-in-focus/2016/07/05/political-party-training-chinas-ideological-push-in-africa/>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 형성이 시작된 것은 1995년 비동맹국 반동회의(Bandung Conference of Non-aligned Nation)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서구 국가들의 봉쇄에 직면하게 되자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함.

2000년에 설립된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에서 중국은 44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3년마다 한 번씩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함.

-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 형성이 시작된 것은 1995년 비동맹국 반동회의(Bandung Conference of Non-aligned Nation)라고 할 수 있음. 중국이 구소련 연방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동맹국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식민지 경험이라고 하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 3국들과 관계 개선을 시도함.
- ◆ 이후 UN에서 대만과 다양한 외교적 문제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에 자신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목적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전략적 파트너로 상정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 많은 원조를 제공함.
- ◆ 198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경제개발 추진을 위해서 서구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프리카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음. 하지만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서구 국가들의 봉쇄에 직면하게 되자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함.
- ◆ 이후 1990년대 들어서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 투자, 개발원조 및 기술이전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음.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의 개발 모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IMF, World Bank 등과 같은 서구국가들의 영향력이 막대한 기구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중국을 전략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기 시작함 (Ayodele and Sotola 2014).
- ◆ 2000년에 설립된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에서 중국은 44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3년마다 한 번씩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함. 2018년 시진핑 주석의 개회사에서는, “우리는 아프리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원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와의 관계에서 ‘다섯가지 No’ 접근법을 따를 것인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에 적합한 개발 경로를 추구하는 것에 간섭하지 않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아프리카 국가들에 강요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에 정치적 조건을 내걸지 않고, 아프리카와의 투자 및 금융 협력에 있어서 이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관계 협력 및 진정을 위한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정치적 행태는 매우 전략적이고 조건적인 협력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 ◆ 그렇다면 실제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실제적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 우선 외교



수 있음. 2016년에는 중국과 이웃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연관된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39개 아프리카 국가들은 공개적으로 중국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최근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도 중국이 홍콩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국가들 중 절반 이상은 아프리카 국가였음. 또한 최근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정책에 대해서 중국의 억압적인 정책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힌 37개의 국가들 중 거의 절반 가량이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음.

*2019년 겨울 Covid-19 발병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자,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렇듯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외교적 관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의 지원과 원조가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19년 겨울 Covid-19 발병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자,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020년 6월 17일 중국과 아프리카의 방역단결 특별정상회의를 시발점으로 해서 각종 방역물품을 제공했으며, 2021년에는 중국의 백신 생산업체인 시노팜(Sinopharm)과 시노백(Sinovac) 등의 기업들은 모로코, 이집트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중국산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했음. 중국은 이러한 백신 공급 노력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조건 없는” 원조라고 강조했으나, 실상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참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전략적인 태도를 취함.
- ◆ 이렇듯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외교적 관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의 지원과 원조가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 사업에 더욱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발병을 계기로 보건분야에서의 지원 및 협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당분간 중국과 아프리카는 정치, 외교적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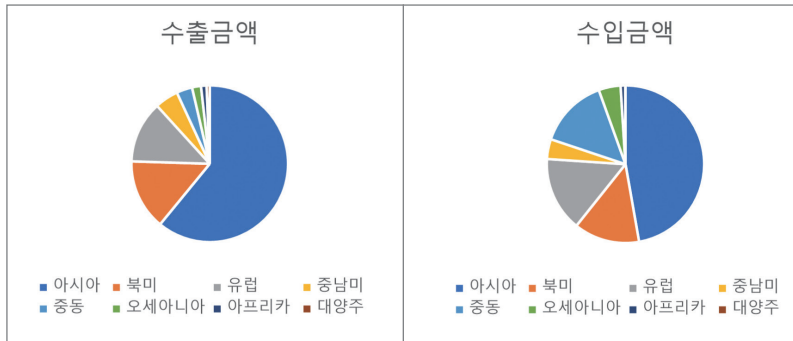
#### IV.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

- ◆ 한국에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은 잊혀진 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미약한 수준이었음. 한국은 지형학적 위치 및 제한된 정치/외교적 역량으로 인해 전지구적 행위자로 활동하기 힘든 한계를 지니므로 다양한 방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교류 및 협력을 이루기에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이었음. 2018년 이낙연 전 총리가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을 국빈 방문하기는 했으나, 이것도 매우 드문 정치적인 일로 받아들

여졌으며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방문 외교”도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적인 측면에서조차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 그치며, 다양한 통계수치를 통해서 볼 때도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호 경제적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경제적인 측면에서조차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 그치며, 다양한 통계수치를 통해서 볼 때도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호 경제적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림 7〉 2019년 한국의 대륙별 수출입 실적 (단위, USD 1000)



(출처: 수출입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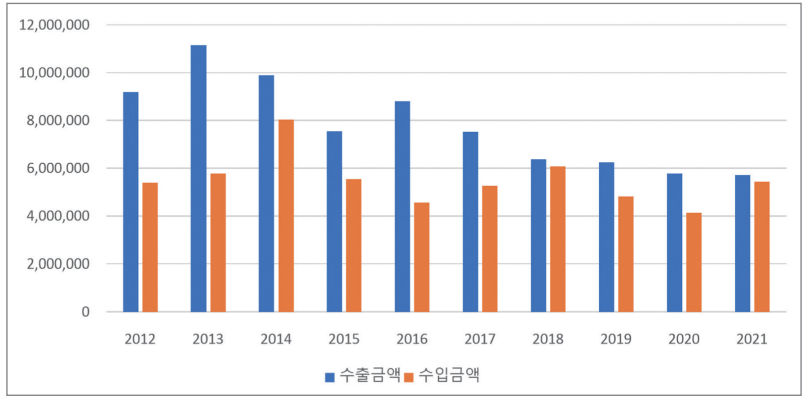
◆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관계를 지표화해서 나타내주는 몇 가지 수치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되짚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함. 〈그림 7〉은 한국의 2019년 한국의 대륙별 수출입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과 수입액수 모두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대륙별로 볼 때 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과의 교역이 금액 기준으로 거의 전체 교역액의 75%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한국의 교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 중심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아프리카의 경우 대양주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인구 수와 경제력, 그리고 상당한 지하자원의 매장량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수치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임.

◆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발전 잠재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최근 10년간의 수출입 금액 추이를 〈그림 8〉을 통해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한국의 아프리카 수출액의 경우 오히려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액의 경우에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지리적으로 먼 거리, 교류의 경험의 부재, 상호 의존도의 약화, 저개발 국가라는 인식으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은 그동안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로 전혀 인식되지 못했음. 과거 자원 조달을 위해 아프리카와

*과거 자원 조달을 위해 아프리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했지만 현재에는 방향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했지만 현재에는 방향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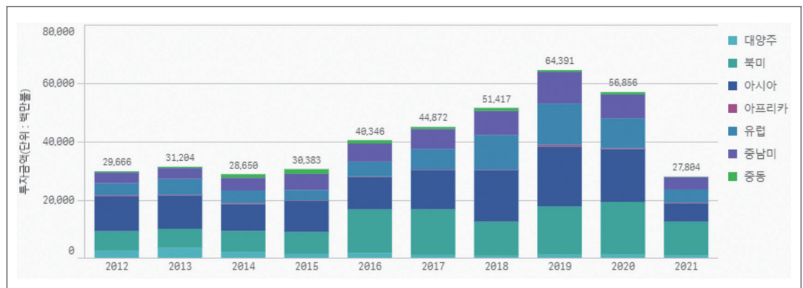
〈그림 8〉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교역액수 추이, 2012-2021



(출처: 수출입무역통계)

- ◆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액수의 변화 추이를 관찰해봐도 아프리카는 그동안 한국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되지 못해 왔음. 〈그림 8〉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집, 배포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지역간 통계 자료를 2012-2021년의 기간동안 대륙별로 모아서 나타낸 자료인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답보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9〉 한국 해외직접투자 지역간 통계,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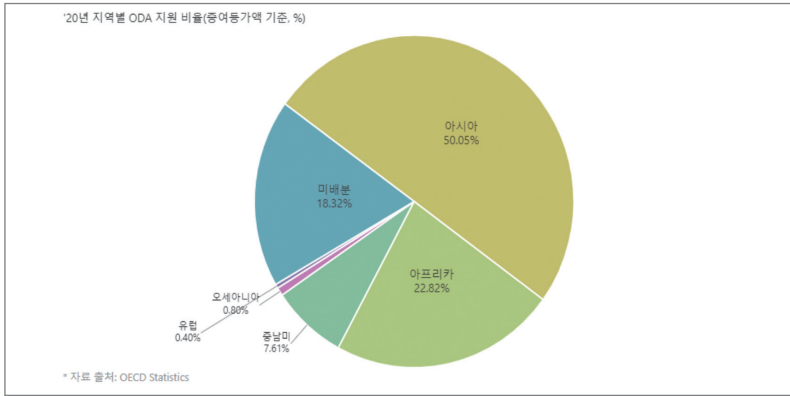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아프리카와 경제 관계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지원은 인도 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짙은 것을 알 수 있음.*

- ◆ 그렇다면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어떠한 대상으로 인식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9〉를 통해서 살펴보면, 한국은 아프리카를 단지 대외원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2020년 한국의 최대 지원은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친밀도 및 밀접한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의 지원이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음. 아프리카와 경제 관계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짙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0〉 2020년 한국의 지역별 ODA 지원 비율



(출처: 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sup>7)</sup>)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원조를 늘려가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를 지원 대상으로 상정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경제적 가능성이 큰 시장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아울러 ODA의 전략적 성격을 부각하여 원조 제공 대가로 수혜국들로부터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함. 이미 중국을 포함한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한국 정부도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ODA와 기업의 대외 투자를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 기술 관련 투자에 집중해 아프리카 대륙 진출을 추진해 볼 만함.

◆ 또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이 최근 공식 출범하여 55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하는 거대 단일 시장이 역내 자유무역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행보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임. AfCFTA에 참여하는 역내 인구는 거의 13억명에 달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저렴한 노동력을 의미하므로 한국의 제조업이 진출하기에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음. 하지만 아프리카의 제조업은 그동안 단순생산공정 과정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원조를 늘려가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를 지원 대상으로 상정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경제적 가능성이 큰 시장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이 최근 공식 출범하여 55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하는 거대 단일 시장이 역내 자유무역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행보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임.*

7)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3\\_S02.jsp](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3_S02.jsp)

의지해 왔으며, 해외시장에 수출을 목표로 낮은 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어 왔으므로, 수익성의 측면에서 매력적인 생산지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음. 하지만 아프리카는 코로나 발발 이전 시기에 아프리카는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역대 무역자유화를 이루고자 하는 활발한 노력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곳을 고려하여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V. 결론

*이러한 다각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관계 발전은 중국의 정치/외교적인 목표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의 대외적 경제관계는 엄청나게 변화해왔음. 과거 식민지 모국과의 교역에 집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미 아프리카 대륙에 수입되는 물품 중 중국산 제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음. 상품교역 이외에도 중국 정부가 보증하는 자금은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민간이 주도하는 해외직접투자 액수도 최근 들어서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하는 국가로 성장했음. 이러한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협력 이외에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공여국인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를 급격히 늘려가고 있음. 이러한 다각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관계 발전은 중국의 정치/외교적인 목표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 중국은 아프리카의 젊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을 통해 중국에 우호적인 정치 세력을 키우고자 하며, 중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을 위해 중국 문화 전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양자관계는 FOCAC의 설립을 통해 제도화 되었고, 향후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관계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UN General Assembly에서 전지구적 사안에 대한 아프리카의 의견 표명이 점점 더 중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홍콩 통치 문제 및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발맞춰 최근 Covid-19 발발 이후에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보건 협력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음.
- ◆ 우리에게 아프리카 대륙은 그동안 잊혀진 대륙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로 경제적인 협력이 미미했음. 아프리카에 대한 수입 및 수출은 미미했으며, 민간 주도의 해외직접투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아프리카는 그동안 경제협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지원과 원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음.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를 비롯한 민간부문은 아프리카의 성장 잠재성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협력과 투자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려  
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를 비  
롯한 민간부문은 아프리카  
의 성장 잠재성에 더욱더 초  
점을 맞추어 아프리카에 대  
한 경제 협력과 투자를 늘려  
가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Adisu, Kinfu, Thomas Sharkey and Sam C. Okoroafo. 2010. "The Impact of Chinese Investment in Af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5 (9): 3-9.
- Ayodele, Thompson and Olusegun Sotola. 2014. "China in Africa: An Evaluation of Chinese Investment." *IPPA Working Paper Series*.
- Bailey, A. Michael, Anton Strezhnev, and Erik Voeten. 2017. "Estimating Dynamic State Preferences from United Nations Voting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1 (2): 430-456.
- Bluhm , Richard, Axel Dreher, Andreas Fuchs, Bradley Parks, Austin Strange, and Michael Tierney. 2018. "Connective Financing: Chines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the Diffusion of Economic Activity in Developing Countries." *AidData Working Paper #64*. Williamsburg, VA: AidData at William & Mary.
- Liu, Ailan and Bo Tang. 2018. "US and China aid to Africa: Impact on the Donor-recipient Trade Relations." *China Economic review* 48: 46-65.

❖ 저자 약력

■ 류제홍

현재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2020년 University of Rochester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마쳤고, 통상협정, 무역구제, 다자무역제도 및 해외직접투자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기획 및 감수: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김인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조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